우암학원 창학 71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제21755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4월 12일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경선 후유증에 갈라진 당심, 민주 원팀 구성 가능할까

민주 공천 탈락 현직 단체장 대거 출마…무소속 돌풍 불지 주목
거대 양당 득표율 전쟁…쟁쟁한 후보 나선 국힘 선전 여부 관심

6·1 지방선거 D-20…관전 포인트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12일과13일 이틀 간 후보 등록 시작과 함께 본선 레이스가 펼쳐진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점에서 당내 경선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이 과정에 경선 불복, 후보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나선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상당수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공천을 받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만큼 민주당 VS 무소속 후보 간 대결이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또한 지난 대선 결과, 불모지였던 광주·전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리며 호남 민심의 변화를 느꼈던 국민의힘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후보 기근'에 시달렸던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 광주와 전남 광역단체장 후보를 비롯한 기초단체장·지방의원 후보들을 상당수 내고 '필승'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서다.

◇**민주당 원팀 구성 가능할까**=민주당 공천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 때문에 '민주당 원팀' 구성이 무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만나 '원팀' 구성에 협력하고 함께 지방선거 승리와 지역 발전에 뜻을 모았지만, 일부 선거구에서는 원팀 구성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 후보 간 고소·고발, '경선 불복' 등이 잇따르면서 사실상 당심과 민심이 찢어졌다는 지적이다.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는 박병규 예비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지만, 경선에 참여했던 최치현·윤난실 등 나머지 예비후보들이 박 예비후보 측의 '권리당원 금품 살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남지역은 광주에 비해 공천 잡음이 더욱 시끄러웠던 만큼 '원팀' 구성이 더욱 힘들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공천은 대부분 재심 신청이 이뤄졌고, 일부 지역은 재경선도 이뤄졌지만 그 결과에도 불복해 고발을 하는 등 '경선 생채기'로 인한 지역 민심이 사분오열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VS 국민의힘 후보들 득표율은**=또 하나의 관심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 후보들의 득표율 전쟁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변화하는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최고의 득표율을 올리겠다는 게 목표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이용섭 후보는 84.07%의 압도적 득표율을 보였다. 따라서 강기정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그 이상의 득표율을 올릴지 관심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영록 전남지사는 4년 전 지방선거에서 77.08%의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 이 득표율을 넘어설 지 주목된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가 없었고, 이번 선거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나선 만큼 민주당 후보들의 최고 득표율 기록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 지방선거 대비 최고 득표율을 노리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로는 윤석열 당선인의 복심이, 전남지사 후보로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정현 후보가 나섰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12.72%, 전남 11.44%의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올린 만큼 변화하고 있는 광주·전남 민심에, 경쟁력 있는 후보까지 등장함에 따라 높은 득표율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기초단체장 후보와 지방의원들까지 대거 출마하면서 '국민의힘 원팀' 구성을 통해 광주·전남 전 지역에서 바닥 민심을 다진다면 무난하게 최고 득표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의회와 지방의회에 비례대표 후보들을 포진시킴에 따라 지방의회 입성도 기대되고 있다.

◇**무소속 돌풍 불까**=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현직 기초단체장들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면서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무소속 돌풍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단체장들인 만큼 경쟁력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광주·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광주의 경우 현직 서구청장인 서대석 예비후보가 '꼼수와 배신 공천'이라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여기에 공천 탈락자들의 세 결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서구는 광주에서 유일한 자치단체장 선거의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는 현직인 강인규 나주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등이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컷오프되면서 모두 무소속 출마로 선회했다. 여기에 무소속 송귀근 고흥군수, 정종순 장흥군수 등이 본선 채비를 하고 있다. 또한, 목포에서는 박홍률, 순천에서는 노관규 후보 등 경쟁력을 갖춘 전직 시장들도 민주당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따라서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는 대다수 지역에서 민주당 대 무소속 후보 간 대결 구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수 정당 성적표는**=정의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소수 정당들도 광역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를 내고 표밭갈이를 하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 거대 양당 체제 구도가 더욱 확고해짐에 따라 소수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더욱 '올인'하는 모습이다. 지방선거인 만큼 지역에서라도 거대 양당 체제 독식 구도와 민주당 독점 구도를 깨야 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첫 수석 비서관 회의…물가부터 챙겼다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해야 통합, 너무 당연해 취임사서 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금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북한의) 핵실험 재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보뿐 아니라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다 모니터를 하고 준비를 해달라"고 참모진에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이슈와 관련해선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제일 문제가 물가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지표를 면밀하게 챙겨 물가 상승의 원인과 원인에 따른 억제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다 올라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산업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그 자체가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기에 빨리 재정을 당겨서 가능한 한 빨리 조기 집행해서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수석비서관 업무가 법적으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다 같은 관점에서 자기 분야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두 밑창이 닳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방 저 방 다니며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 그래야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가 부각된 반면 통합 언급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며 "좌파·우파가 없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따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어떤 공감대와 공동의 가치를 갖고 갈 때 진정한 국민통합,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으냐 해서 말씀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도 "어제 취임사에 통합 이야기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라며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를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尹정부 초대 국정원장 김규현…1차장 권춘택

박지원 국정원장 퇴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김규현(69)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했다. 국정원 1차장에는 권춘택(62)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서울 출신인 김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거친 정통 북미 라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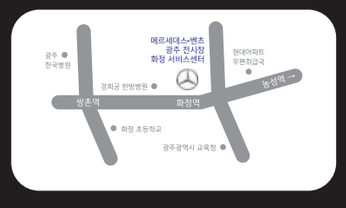
국정원장이 내부 인사가 아닌, 정통 직업외교관 출신이 발탁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외·대북 정보 수집 담당의 국정원 1차장에 내정된 권 사무총장은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부터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해외 파트 등에서 근무했다. 주유엔 공사, 국정원장 비서실장, 주미 정무공사를 지냈다.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한편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퇴임했다.

김규현 원장

〈관련기사 2면〉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QS
This is for you.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 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S 450+ AMG Line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3.8(도심: 3.8, 고속도로: 3.7) 1회 충전거리(km) : 478,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107.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